

추석 특별기고

가을밤의 세레나데



리명한 소설가

초록빛 골짜기로 선들바람이 스며들면 산천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어 가며 황금빛으로 물들어 갔다. 여름 내내 눈밭에서 땀을 흘렸던 농군들은 너나없이 수확을 기대하는 뿌듯한 충족감에 젖어 있었지만 희망을 담아야 할 주머니조차 갖지 못한 벌거숭이들은 허전한 안고 광야에 내던져져 허우적거렸다.

T.S 엘리엇은 그의 장시 '황무지'에서 겨울 동안의 혹심한 추위로 얼어붙었던 대지의 살갓을 뚫고 쓰드느 라이락의 발아 과정을 잔인한 아픔으로 표현하였는데, 그가 이런 역설을 토해 낸 것은 4년 전에 겪었던 참담한 일차대전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으니, 전쟁이라는 범죄적 발작이 얼마나 인간의 감성과 인식의 본질까지 망가뜨려 버리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엘리엇은 위험한 역사의 폭약을 싣고 궤도를 이탈한 장갑열차가 전통의 성곽을 박살내고 지나간 황막한 폐허에서 상처를 입고 방황했던 보헤미안이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민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2004년부터 유전자원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멸종 위기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곁에서 사라졌던 지리산 반달가슴곰, 백두대간의 산양, 화천의 수달, 소백산의 여우 등 우리 민족의 일과 함께 수천 년을 살아 숨쉬었던 멸종 위기 동물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 최근 '국립 멸종위기 종 복원센터'가 완성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 종 복원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리의 고유한 민족 정서와 조상의 삶 속에 녹아 있던 애환까지 복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우리의 백두산 호랑이, 곰, 여우, 늑대, 표범 등은 1915년부터 조선총독부가 '해수 구제 사업'(害獸驅除事業)을 통해 맹수로부터 사

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 산하의 야생동물들 무차별하게 사냥하고 도살해 그 종을 멸종시켰고, 결국 민족적기마저도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이 기간 동안 표범은 약 500여 마리가 희생됐다. 광복 후에는 남한에서만 서식하던 표범은 1970년대 가야산에서 마지막 목격이 된 후 그 명맥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외에도 곰 1000여 두, 늑대 3000여 두, 여우 1500여 두 그리고 삼살개는 매년 수십만 마리를 사살해 모피나 군수용품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스크린을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 '대호'에서 조선의 마지막 백두산 호랑이 사냥 장면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이처럼 일제에 의해 절멸된 우리 땅의 토종 동물은 단순히 멸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마저도 함께 빼앗긴 잔혹사를 우리 가슴에 안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제의 고유 자원 멸절 정책에도 큰 저항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오류를 범해 안타까운 진실을 간직하게 됐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먹거리 해소 정책을 명분으로 우리의 고유한 유전자원을 상당 부분 스스로 훼손시키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몇몇 위정자들에게 의해 펼쳐진 육고기 증산 정책은 외국의 유전자원

위해 주었던 것은 남술이라는 이름의 이물질 누나였다. 얼굴이 달덩이 같았던 그녀가 분홍빛 땀기로 짙 탐스러운 변발을 출렁이며 뛰기 시작하면 주술에 걸린 것처럼 뛰어나가 따라다니며 귀찮게 굴었었는데, 허무한지!

어느 날엔가 나는 동네 앞으로 나갔다가 그렇게 좋아했던 누나가 며칠 전에 일본에 있는 숙부를 찾아 마을을 떠나 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애절하게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열아홉 살 소년이라할 수 있는 아버지를 잃고 늙은 조부모 그늘에서 살고 있던 그녀였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얼마나 서운하고 슬펐던지 저녁때가 되면 동네 앞으로 나와 그 집 앞을 맴돌다가 돌아갈 때면 주르르 불 위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곤 했었다.

그리고 나서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일본 땅을 밟게 되어 도쿄의 미다카(三鷹)에 살고 있다는 그녀에게 기별을 했더니 연락속 저고리에 분홍치마 차림으로 예쁜 머느리와 같이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아 왔었다. 상대가 편할 듯싶어 일본어로 말을 걸었더니 아랑곳없이 우리말로 대꾸하며 조국의 분단을 걱정해 주었는데 대화의 과정에서 나를 감동케 한 것은 1세기 가까이 일본 땅에 살아왔으면서도 결코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의연함이었다. 일본어를 꺼낸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강강술래 말이에요. 너무 즐겁고 흥겨웠었는데, 그 때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다 뿐이겠는가?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 있는데~자네가 내 뒤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땀기를 잡아당기고 해서 콧 한 번 때려 줄다가 허허허..."

어깨를 들먹거리려는 자세가 금방이라도 일어선서 술래춤을 출 것만 같았다.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왜 이리 그리울까?"

갑자기 팔십 년 전에 가신 아버지를 거론하는 그녀의 얼굴이 숙연해졌다. 처녀적 그녀의 이름은 뜻풀이가 어려운 남술이었는데 호적에는 김유순(金遊順)이었다. 유복녀였기에 할아버지가 붙여 증재해준 이름이었다.

"그러시겠지요."

그녀의 눈에 불기가 서린 것을 본 나의 눈시울이 덩달아 뜨거워졌다. 애절한 슬픔은 공강하고 공유할수록 아리따운 것. 속눈이, 용덕이, 딸그만, 공래... 함께 자라며 뛰놀았던 친구들의 이름을 대다가 거기가 세상을 떠나 버린 것을 알게 되자 민망스러움에 대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오래오래 사시기를 부탁하며 손을 잡고 흔들다가 헤어졌는데 슬프게도 작년 여름에 세상을 떠났다는 부음이 들려왔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 간직해 왔던 동심의 동산이 허물어져 나가는 아픔이었다. 아름다운 추억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나의 가슴을 떠나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있는데, 어느 집에서인지 기타 줄에 실린 세레나데가 창을 넘어 아련하게 건너와 가슴속을 적셔 준다.

우리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유전자원

우리의 것과 교잡해 오로지 유류 생산량만 늘려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도입했다. 이렇게 한우는 외국종과 교잡돼 다시 한우 고유의 유전자원을 복원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을 허비했고, 토종닭은 그 원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전자원이 뒤섞여 버렸다.

다행히도 몇몇 토종 동물 지킴이를 통해 원종을 복원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아 국가의 보호를 받는 동물로 거듭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은 소(제주 흑우), 돼지(제주 흑돼지), 말(제주마), 닭(연산 오계) 각 1종, 그리고 개가 3종(진돗개, 삼살개, 동경이)으로 지정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유 품종인 흑염소나 지리산 흑돼지 등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피 속에는 우리의 우대함으로 인해 오래 유전자원이 아직도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파주 농장의 재래 닭 지킴이 노부자가 50년 전 재래 닭을 수집해 육종과 번식을 통해, 훌륭하게 복원시킨 재래 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문화재청에 요청했지만 요건의 미비로 지정이 연기됐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래 가축 유전자원 확보와 보존에 대

한 개념이 아직까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한 사례다. 이들 노부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중한 재래종을 지키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비록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어려운 재래 가축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유전자원은 종자, 천연물 신약, 산업소재 등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경제가치를 지니며, 생태계 유지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생태가치를 지닌다. 또한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된 자연환경이 음식, 생활습관, 종교 등에 영향을 미쳐 민족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문화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생물자원을 통한 새로운 문명의 탄생으로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회 가치도 지닌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치열해지는 유전자원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전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생태, 정치적 가치 등을 포함한 국가 유전자원 관리 전략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잠재적 가치의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추석, 귀성과 성묘의 의미

명절 분위기는 식었지만 그래도 추석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명절임에 틀림없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선조들이 천년이 넘도록 명절로 정해 지내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첫째는, 추석은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이다. 서양 사람들에게도 밸런타인데이 나 부활절 같은 명절이 있다. 밸런타인데이는 로마시대 천주교 박해 당시 순교한 밸런티누스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처럼 서양의 명절은 거의 종교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명절은 자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제비와 까치 등 우리의 명절에는 자연이 있다.

농부들에게 있어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삶의 일부였다. 농부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자연의 법칙 중 하나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것이다. 이 말은 인과보응이다. 우리 어른들이 추석에 어린아이들에게 항상 하던 말이 '착하게 살아라'는 말이다. 선한 행동을 하는 이는 선한 업보를 받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이는 악한 업보를 받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면서 우리 삶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가져다준다. 추석을 통해 다시금 지은 만큼 받는다는 사실을 되새겼으면 한다.

둘째는, 추석은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감사를 올리며 귀소본능의 본래 모습을 확인시켜주는 '귀성'이라는 의미를 알게 해준다. 자주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추석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고향은 지역적인 개념만은 아니다.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 우리를 가르쳐주신 스승님, 나를 지탱해준 친구들,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개념이 바로 고향이다. 고향을 잊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고향을 잊은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쓰러진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추석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성의 본래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추석은 성묘를 통해 조상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조상과의

만남은 조상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결국 그 근원은 조상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조상에 대한 감사는 결국 내 삶의 주변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다. 현재 내 삶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조상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온다. 그래서 차레를 올릴 때 조상에 대해 감사함과 더불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주변의 인연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동료 등 지금 나를 있게 한 이들에게 말이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조상님들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차례상이 될 것이다.

요즘 가수 김광석씨의 말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보도는 우리 사회의 표면적인 가치관을 생각하게 한다. 추석을 앞두고 보도된 뉴스는 우리에게 다시금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지 모른다.

아무쪼록 긴 추석 연휴에 가족, 친지들과 파스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한숨짓는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함께하는 추석을 기원한다.

社說

전통시장에서 느껴 보는 풍성한 한가위

앞으로 닷새만 지나면 추석이다. 이번 추석에는 유례없는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계속된다. 누군가는 여행을 계획하며 떠들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외로움에 한숨을 내쉬기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추석 경기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니 웃음이 절로 나올 만하다. 하지만 썰렁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울상이다. 여기서 장사가 안 된다며 한숨짓는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편리함에 밀려 사양길로 들어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명절 때만 되면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이 붓물을 이루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추석 제수용품만이라도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통시장은 우선 값이 싸다.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품목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2만 7172원인 반면 대형마트는 29만 6485원이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3.4%(약 7만 원)나 덜 드는 것이다.

장기 불황으로 가족이나 경기도 어려운 판에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럴 땐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것도 현명할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 전통시장은 주차장을 갖춘 곳도 많아 과거의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다. 또한 과거와 달리 깨끗하게 정비돼 더 이상 낡은 시설도 아니다. 이번 추석에는 인근 전통시장과 도내 곳곳의 5일장을 찾아 풍성한 수확의 가을을 느끼며 정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

학생들 정신 치료 지원 기금 대폭 늘려야

학교생활에서 정신과적 상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올 2학기에는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과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한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의 '위기 학생 치료기금'이 1학기에 이미 모두 바닥 나 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3년 새 자살 학생 수가 21명에 달하는 등 위기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자살 시도 전력 또는 충동이 있거나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한해 전문기관 상담 치료 및 정신과 약물 치료비로 개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위기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학생은 2015년 51명(5000만 원), 2016년 71명(6000만 원)이다. 올해는 치료 대상자 증가를 감안해 예산을 1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이미 지난 1학기 때 전액 집행된 상태다.

교육청이 치료 학생 수를 늘려 잡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치료 대상자

수요를 제대로 가능하지 못한 탓이다. 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병행·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 건강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무려 2759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위기 학생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폭력이나 왕따, 성적 비관, 부적응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감성이 예민하고 정서가 불안정한 시기의 학생들이 학업 성취보다는 정신 건강이 우선이다.

앞으로는 치료에 필요한 학생 수를 학교별로 파악해 예산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자녀의 건강과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예산이 없다면 교육청과 의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지원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명절이면 늘 교통지옥을 떠올리게 된다. 승용차가 폭넓게 보급되지 않았던 80년대, 지금의 대인동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던 시외버스 터미널은 귀성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그 시절 집에 내려가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인파에 치여 조속음이 돼 가는데 버스 는 왜 그렇게 더디게 오던지. 당시 강 건너·앞도 등지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무등정기장 정문 앞에서 대기해야 했다.

귀나 사람이 많은 탓에 줄을 세울 수 없어 현장에 있던 버스 회사 직원들이 눈 대중으로 버스 한 대에 탑승할 만한 인원

그 시절의 귀향

을 50여 명씩 묶음 단위로 나눠 놓곤 했다. 묶음을 가르는 구획은 나일론 줄이거나 대나무 장대였던 기억이 떠올라 웃음이 난다. 입석이지만 버스에 올랐다는 안도감에 피곤을 잊었던 기억도 새롭다.

신영복 선생은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추석'이란 글을 통해 귀성 행렬을 이렇게 설명했다. "객지에서 고향으로 향하는 술한 행렬은 차서 뒤틀린 몸뚱이를 뒤척여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입니다...엄청난 귀성 인파는 이렇다면 우리 사회 속에 구조

화되어 있는 소외의 외화체(外化體)인 면서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공동체의 몸부림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성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려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현상으로 해석하는 신영복 선생다운 타점이다.

요즘 명절에는 가족들이 어렵게 만나지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

석한 결과, 2014년 설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 연휴에 경찰이 접수한 가장 폭력 신고

는 3만1157건에 달했다. 이 기간 연휴는 32일로, 하루에 974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각박한 세태를 보여주는 수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른 관점으로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 거친 세상 풍파에 떠나 없이 시달리다 보니 가족 간에도 서로 보듬어 주는 마음의 여유마저 빼앗긴 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올 추석에는 가족 간 정을 나누는, 각박한 세상을 바꿔 보려는 사람의 연대를 가족 너머까지 확장하자고 서로 다짐하면 어떨까. /윤영기 사회부장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사 진 부 220-0693
*주요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다가온다. 지난 한해 숨가쁘게 달려온 모든 이들에게 아마도 올 추석은 어느해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듯하다.

추석은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다. 신라 중엽 이후 한자가 성행하게 된 뒤 중국인들이 사용하던 중추와 월석이란 말을 축약하여 추석이라 하였다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던 것은 추석이 얼마나 우리에게 넉넉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올해 추석은 길어진 탓에 해외 여행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것이라 한다. 과거의